

Emerging Daily

미국 금리인하 기대 불구, 중국본토 상승폭 축소

2019. 7. 12 금요일

상해종합지수 2,917.8(2.5pt, +0.08%) / 차스닥지수 1,514.2(3.8pt, +0.25%)

상승 출발한 상해종합지수는 상승폭이 축소되며 강보합으로 마감. 거래대금은 1,522억위안으로 전일대비 8% 증가.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이 기업 투자 증가세 둔화와 낮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사실상 7월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단 수출입 및 통화량 지표 발표 앞두고 경계심리가 부각됐고 특정 로컬신탁사 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의 자금조달을 중단했다는 루머에 투심이 악화됨. 미국 USTR이 의료기기를 포함한 110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면서 의료기계 업종이 상승했고, 통신, 소재, 은행, 에너지 등 강세. 반면 반도체, 유통, 화장품, 레저, S/W 등 업종은 하락. 외국인인 상해 A주와 심천 A주를 각각 18억위안, 6억위안 순매수함.

홍콩 H 지수 10,784.0(82.1pt, +0.77%) / 항셱지수 28,431.8(227.1pt, +0.81%)

홍콩H지수는 장중 강세가 유지되며 상승 마감.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상 7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6월 FOMC 의 사록에서도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 증시에 호재. 대다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3분기 국영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기업 설립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다수 증권사 보고서에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뚜렷했음.

인도 센섹스지수 38,823.1(266.1pt, +0.69%)

인도 증시는 4거래일만에 상승 마감. 통화정책 증언에서 파월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인도 증시는 2개월래 저점에서 반등. 투자심리는 12일 발표예정인 라지캡 기업들의 실적과 인플레이션등의 경제지표에 좌우될 것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 6,417.1(6.4pt, +0.10%)

인도네시아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업종별로는 금융, 부동산, 잡화, 건설주가 강세를 보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책의 영향으로 공업용 부동산 업종이 연래 강세를 보이며 상승을 견인

베트남 VN 지수 978.6(5.0pt, +0.51%) / HNX 지수 106.0(0.9pt, +0.83%)

VN지수는 장중 상승폭이 확대되며 강세로 마감. HNX지수도 강세 마감. 업종별 등락이 상이한 가운데, 금융 업종이 1% 넘게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 외국인인 VCB(베트남무역은행), CTG(베트남산업무역은행) 등을 순매수한 반면, VIC(빈그룹), MSN(마산그룹) 등을 순매도

주요 이머징마켓 금융지표

(단위: p, %, %)

구분	7/11(목)	전일대비	전년말대비	구분	7/11(목)	전일대비	전년말대비
중국 상해종합	2,918	0.1	17.0	MSCI 이머징마켓	1,055	0.6	9.3
중국 심천종합	1,549	(0.1)	22.2	MSCI 선진국	2,205	0.2	17.1
CSI 300	3,785	(0.0)	25.7	S&P500	3,000	0.2	19.7
차이넥스트	1,514	0.2	21.1	KOSPI	2,081	1.1	1.9
홍콩 H	10,784	0.8	6.5	위안/달러 환율	6.87	0.00	(0.12)
홍콩 항셱	28,432	0.8	10.0	JP모건 EM통화지수	63.16	0.06	1.46
인도 SENSEX	38,823	0.7	7.6	달러인덱스	97.06	(0.04)	0.92
브라질 보베스파	105,146	(0.6)	19.6	인도 국채금리(10Y)	6.49	(0.05)	(0.88)
인도네시아 JCI	6,417	0.1	3.6	브라질 국채금리(10Y)	7.20	(0.01)	(2.04)
베트남 VN	979	0.5	9.6	중국 국채금리(10Y)	3.16	(0.01)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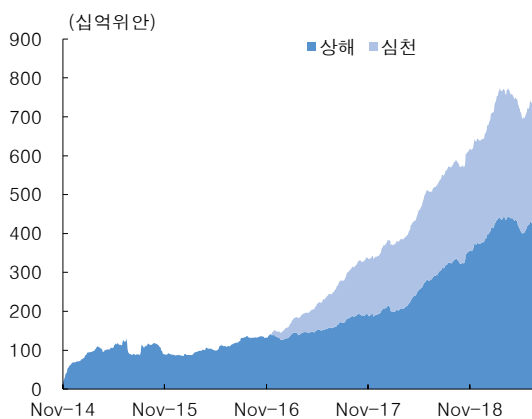


NEWS

- ▶ 중국 리커창 총리, 청결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수전, 풍전 및 태양광 발전 등을 추진할 것
- ▶ 중국 상무부, 6월 외국인 직접투자는 161.3억달러 전년동기대비 3% 증가
- ▶ 중국 상무부, 현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작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곧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
- ▶ 중국 상무부, 중국측도 관세 철회 제도를 구축했고, 미중 양국은 곧 무역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
- ▶ 시나재경,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에게 주간단위로 유동성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
- ▶ 시나재경, 다수 신탁사는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 심사를 중단하지 않았지만 더욱 엄격히 심사할 것을 요구받아
- ▶ 시장 연구기관 360 빅데이터, 6월 평균 주택구매자금 대출금리는 5.42%로 전월대비 0.14%p 상승
- ▶ 안타스포츠(2020.HK), Muddy Waters가 제기한 FILA 매장수를 과장했다는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공식반박
- ▶ 러시아, 7월 5일 기준 금&외환보유고 5,183억달러(직전치 5,171억달러)
- ▶ 브라질, 5월 소매 판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0%(컨센서스 1.3%, 직전치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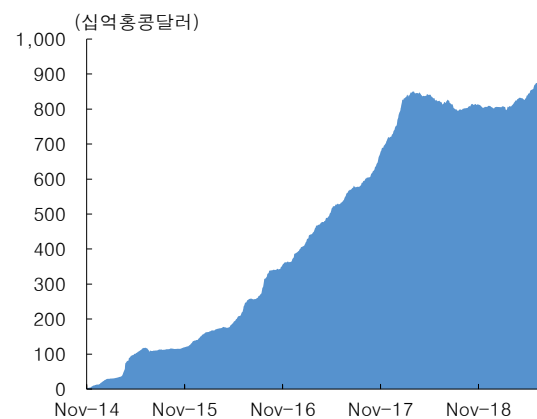
외국인들의 중국 A주 매매 동향

후/선구통 누적 순매수액 추이



출처: Wind

강구통 누적 순매수액 추이



출처: Wind

당일 후/선구통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들의 순매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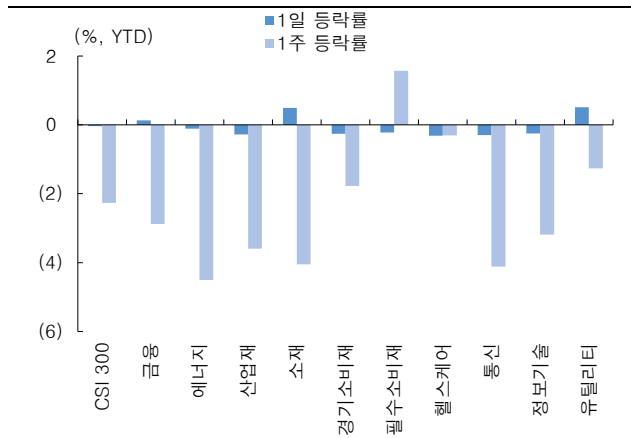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후구통 해외투자자 순매수 상위종목					선구통 해외투자자 순매수 상위종목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순매수액	상승률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순매수액	상승률
1	600036.SH	초상은행	339	2.2	1	000002.SZ	만과A	209	0.1
2	600887.SH	이리실업	239	2.2	2	002304.SZ	양허구분	191	(0.8)
3	601318.SH	중국평안보험	229	0.1	3	000333.SZ	메이디그룹	123	0.9
4	600519.SH	귀주모태	136	(0.1)	4	000858.SZ	오량액	36	(2.3)
5	601888.SH	중국국여	72	(2.1)	5	002714.SZ	목원식품	(1)	0.8
6	601012.SH	웅기고분	(3)	(3.6)	6	000568.SZ	노주노교	(28)	1.1
7	600585.SH	해라시멘트	(3)	0.6	7	002415.SZ	하이크비전	(60)	0.3
8	601601.SH	태평양보험	(46)	2.4	8	300498.SZ	온씨식품	(66)	0.1
9	600276.SH	항서제약	(77)	(1.1)	9	002475.SZ	입신정밀	(93)	(1.9)
10	600030.SH	중신증권	(103)	(0.1)	10	000651.SZ	격력전기	(127)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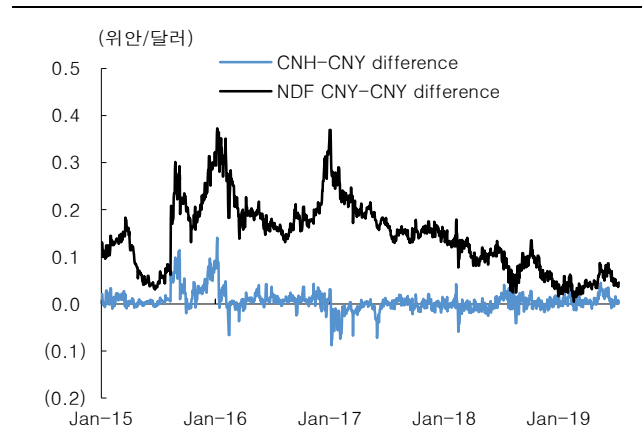
출처: Wind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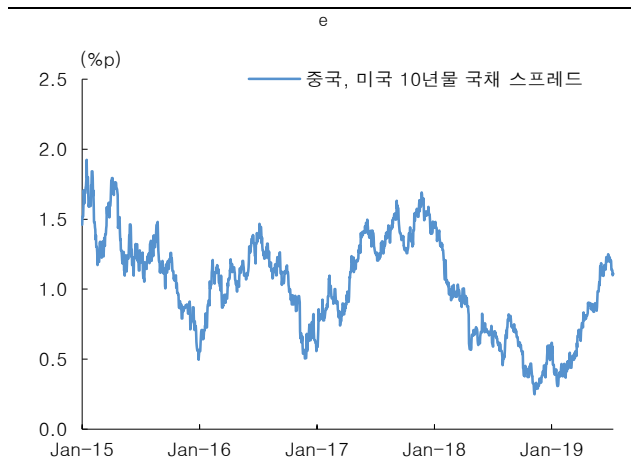
중국 CSI 업종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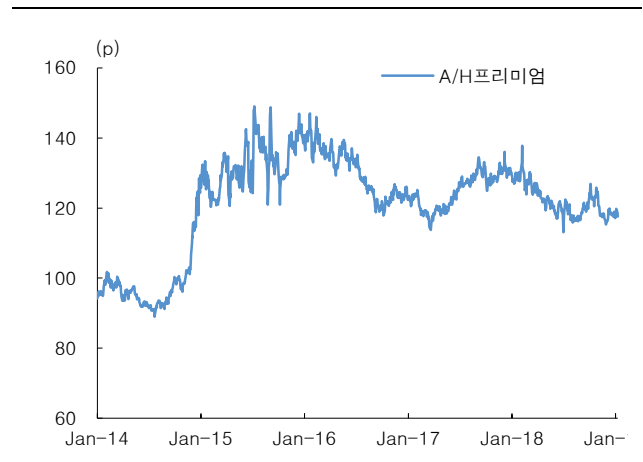
역내외 위안화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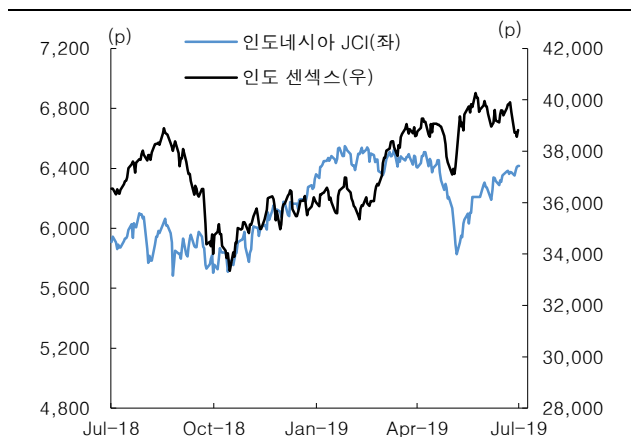
중국과 미국 금리차(10년 국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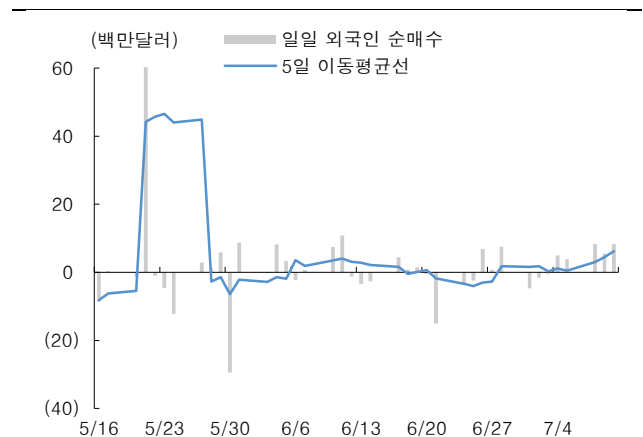
A/H 프리미엄 추이



인도네시아 JCI, 인도 센섹스 지수



베트남 증시 외국인 순매수



출처: Bloomberg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